

2018년 고려대를 빛낸 교수 인터뷰

이원준(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Backscattered) 집속형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연구 결과물 중 하나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가치관과 함께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상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수상이라 더욱 기쁩니다. 하지만 연구자는 수상이나 기사로 평가받는 것보다 동일 학계의 학자나 후학에게 평가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준 교수는 17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보람 있게 만들어 준 잊지 못할 학생을 소개해 주었다. “학사경고를 여러 번 받은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고 가정교사가 된 것처럼 관리해줬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그 학생은 성적이 올랐고 지금은 모 대학의 전임교수로서의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노력하면 뭐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준 학생이지요.”

이원준 교수는 상당 분야의 네트워크 기술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2009년 아이폰의 등장에 충격받은 국내 산업계가 해당 기술 인력을 갑자기 찾았던 시절을 언급하며 국내 네트워크 산업이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젠 중국의 네트워크 통신 기술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질주하고 있어요. 저 역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시야를 넓히라 당부하고 있어요.”

이원준 교수는 본교생들이 국제적으로도 더 많은 활약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면 아직도 고려대의 이름을 잘 모르는 해외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본교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든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든 학생들이 세계로 나가 함께 교류하며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글 | 조한규 기자 honeyq@  
사진 | 이희영 기자 heezero@

정보사회를 살아가면서 블루투스나 Wi-Fi 무선랜 모듈 등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 기능을 사용하는데 전력이 소모되기에 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 또한 치열하다. 이원준(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제자들과 팀을 이뤄 재충전할 수 있는 무선통신네트워크에 필요한 다중 소스 무선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의 MAC 프로토콜을 개발한 연구 성과로 미국전자전자학회(IEEE)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이 교수팀은 극 제한적인 아날로그 능동회로를 사용해 초저전력 통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본 연구는 2014년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공모 과제에 선정돼 2년간 수행했던 ‘백스캐터

조철현(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불안해 말고 삶의 주인공이 됐으면”



해당 상은 조울병 분야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젊은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조 교수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생체리듬 파악으로 조울병을 예방·예측하는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융합연구를 통해 이론 성과이기에 의미는 더욱 크다. “이번 수상은 동아시아 연구 선진국가 중에선 처음이예요.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철현 교수는 대학진학 당시 담임교사의 타학교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고려대를 선택했다. “고려대학교에는 투박하지만 정이 가는, ‘인간미’ 서린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를 통해 고려대생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죠.” 조 교수의 고려대 문화에 대한 사랑은 학부 시절부터 특별했다. 고려대 전체의 문화를 체감하고 싶어 의예과 시절에도 자연계캠퍼스를 벗어나 일부러 인문사회계캠퍼스를 찾아가 사람들과 이야기 하며 교류했다. 당시 의예과에선 잘 참여하지 않던 응원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고려대의 문화를 한껏 누렸다. “당시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했던 기억은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고려대가 좋아 작년에는 입실론티에 참여하려고 티켓까지 샀지요.”

현시대는 IQ와 EQ를 넘어 NQ(Network Quotient)라는 네트워크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조철현 교수는 학생들에게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다. “이제는 생각의 패턴과 가치관이 달라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융합연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목적이 있는 삶도 좋지만, ‘고려대생’만의 인간미로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 조한규 기자 honeyq@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정신질환과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5.6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2.4배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3일 2015년부터 3년간 시행한 자살사망자 289명의 심리부검 분석 결과, 자살사망자의 스트레스 요인 중 정신건강 문제는 87.5%로 압도적이었다. 현대인에게 있어 정신건강은 심각하게 대비해야 할 요인인 셈이다.

본교 안암병원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 조울병을 연구하는 조철현(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3월에 열린 세계조울병학회에서 ‘사무엘 게르손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마재형(과기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 “포용과 화합의 시대를 창조해가길”



외에서 발행되는 국제전문학술지의 편집장으로 선임된 경우가 적고, 식품과학 분야에서는 최초이기에 어께가 무겁습니다.”

마재형 교수가 소속된 식품생명공학과는 학과 개설 때부터 ‘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위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마 교수는 최근 학과가 최신 기술을 받아들여 반영한다고 말했다. “3D 프린팅 등 최첨단 신기술과 지식 정보를 신속하게 교육과정과 연구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마 교수는 ‘고려대학교’를 떠올리면 먼저 정기고연전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대 사학의 학생들이 고연전을 중심으로 서로의 캠퍼스를 방문하고 교류하는 축제의 형태로 발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이는 양교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죠. 고연전이 끝나고 나서도 잠살이길에서의 뒤풀이에서 교수들과 재학생이 함께 격려하며 자긍심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마재형 교수는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며 본교생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극적인 역사적 여정이 시작됐지요. 그렇지만 대학가에는 아직 서열주의라는 적폐가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와 잣대를 벗어나 학생들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됐던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해 ‘포용과 화합의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를 바랍니다.”

글 | 조한규 기자 honeyq@  
사진제공 | 마재형 교수

한국의 김치, 일본의 낫토 등의 발효식품은 2006년 미국 잡지 (Health)가 세계적 건강식품으로 선정해 꾸준히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마재형(과기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발효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식품 기능성과 안전성 제고 등을 목표로 식품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해왔다. 마 교수는 이러한 연구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1월 국제전문학술지 ‘Journal of Food Processing & Technology’의 공동편집장으로 임명됐다. “다양한 국가의 세계적 석학들과 식품과학의 발전을 위한 봉사 기회를 받아 영광스럽습니다. 한국인이 해

안남일(문화대 문화창의학부) 교수

## “틀에 박힌 생활은 젊음에 어울리지 않아요”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축제를 연구하는 교육은 찾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근엔 ‘축제학교’ 같은 교육과정을 개설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학 외엔 축제를 연구할 만한 곳이 없어요. 한국축제포럼에서는 ‘한국축제포럼 축제아카데미’를 열어 무료로 축제 관련 강의를 하고 있지요.” 안남일 교수는 학생들에게 축제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모 사업에 응모해 ‘세종축제학교’를 개최하기도 했다.

강단에서 안남일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고(思考)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를 삶에 적용해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문화창의학부는 어떻게 문화향유자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해매고 기웃거리다는 것은 제대로 돌아와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안남일 교수는 학생들에게 너무 틀에만 박혀 생활하지 말고 경험의 폭을 넓히라 조언한다. “학기가 시작되면 어쩔 수 없이 강의시간표대로만 생활하지만 ‘틀’에 박힌 생활은 ‘젊음’과 어울리지 않아요. 시공간의 제약으로 실제 경험이 어렵다면 독서라는 간접 경험으로도 틀을 깨도록 하세요.” 안 교수는 틀을 깨부셨을 때야말로 모든 일을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못하는 것을 방향 때 할 수 있던 생각은 틀린 생각이예요. 다양한 경험을 조금씩이라도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글 | 조한규 기자 honeyq@  
사진제공 | 안남일 교수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 곳곳에선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되는 걸까. 지난 2월 24일 안남일(문화대 문화창의학부) 교수가 제3대 한국축제포럼 회장으로 선출돼 2021년까지 국내 축제 실태를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단체를 대표한다. 제2대 회장에 이어 다시 회장을 맡은 안 교수는 “인지도를 높여 전국 규모의 포럼으로 만들고 싶다”며 “국내 축제 발전이 지역 문화예술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남일 교수는 국내의 축제가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

# 고대신문

## 수습기자 모집

<p><b>모집분야</b> 취재/사진/웹진/영상</p> <p><b>모집대상</b> 3학기이상 활동 가능한 학부생</p>	<p><b>활동혜택</b> 장학금 및 활동비 취재/사진/웹진교육</p> <p><b>원서마감</b> 5월 14일(월)</p>	<p><b>논술면접시험</b> 5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p> <p><b>원서배부</b> 포털게시판 고대신문 홈페이지</p>	<p><b>원서제출</b> open@kunews.ac.kr 홍보관 204호 고대신문 편집국</p> <p><b>문의</b> 대표폰 010-3363-1947</p>
--	--	---	---